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빈곤 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자료를 중심으로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권순현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고령자가구의 자산 분포의 특징, 자산불평등, 그리고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고령자가구의 순자산점유율은 상위 1%가 순자산의 12.0%, 상위 5%는 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49.3%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소득점유율은 상위 1%가 총소득의 8.2%, 상위 5%가 총소득의 23.4%, 그리고 상위 10%가 총소득의 36.1%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자산분포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중의 하나인 '소득보다 자산의 집중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50세 이상의 가구주로 이루어진 가구에 대해서 중위자산의 50%를 자산빈곤선으로 보고, 그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한 다음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자산빈곤층은 80대 57.7%, 70대 47.5%, 60대 28.6%로 나타나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산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가구주가 80대인 경우는 자산빈곤가구의 비중(57.7%)이 일반가구의 비중(4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logit)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가구주 성별이 여성인 경우,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인 경우, 가족 중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자산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주 연령이 약 63세가 될 때까지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지만 그 이후부터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육체적으로 건강할수록,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퇴직 시점이 가까운 근로자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은퇴한 중·고령자가구의 자산빈곤을 완화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도와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용어 자산분포, 자산불평등, 자산빈곤, 자산구성

* 이 논문은 제1회 노후보장패널학술회(2008. 6.)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한신대 배준호 교수님과 익명의 세 논평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자료 분석을 도와준 김경현 씨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교신저자: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johnnam@chol.com)

■ 투고일: 2008. 09.30

■ 수정일: 2008. 10. 27

■ 게재확정일: 2008. 11. 0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을 기점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향후에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를 향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는 단순하게 인구구조의 변화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거의 모든 면에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커다란 변화를 수반할 것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정비되어 있지 않는데, 미국이나 유럽 등과 같이 중·고령자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다면 중·고령자를 위한 각종 정책의 입안이나 성과 평가 등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산불평등에 대한 실증연구에 이용 가능한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산 및 부채에 관한 가계조사 자료, 둘째는 부유세(wealth tax) 또는 부동산세와 같은 과세자료, 셋째는 투자소득자료, 그리고 넷째는 가장 부유한 재산가들의 자산 추정치가 그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중·고령자 관련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이하 「노인생활실태조사」),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와 노동연구원의 「고령자연구패널조사」가 대표적이다. 특히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50세 이상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실태 및 노후준비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로서, 국민연금이 저축이나 노동공급 등과 같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구의 소득분포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나, 가구의 자산 분포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고령자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편이다.

여기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자료 중 가구주가 만 50세 이상인 가구를 추출하여 중·고령자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자산의 구성(portfolio)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등의 합을 총자산으로 정의하고, 여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을 정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중·고령자가구 자산분포의 특징과 자산불평등 현황을 살펴본다. 이어서 자산불평등을 요인별로 분해하고, 자산빈곤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자산분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자. 여기에서 자산이란 인적자본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주로 실물 및 금융자산에 국한된다. 만일 전반적인 경제적 후생수준(overall economic well-being)에 관심을 갖는다면 인적 및 비인적 자본을 총괄하는 총자산을 분석하면 될 것인데, 총자산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다. 자산보유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이들 자산이 소비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적자본의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것들이다. 따라서 가령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조만간 소비지출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거나, 은퇴시점이 가까워져서 조만간 소득의 감소가 예상된다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한 외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소비 또는 지출 수준이 영향을 받을 경우 자산은 소비수준을 평활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Caner and Wolff, 2004). 이와 같이 자산의 소비평활화 기능(또는 역할)은 개인 또는 가계가 불완전한 자본시장에 직면해 있거나 또는 차입제약에 직면하였을 때 더 큰 중요성을 지닌다.

Davies and Shorrocks(1999)는 1980년대 중반 몇몇 국가들의 가계자산 집중도를 정리하고 있는데, 자산불평등이 낮은 국가로는 호주, 한국, 아일랜드, 일본, 스웨덴 등이다. 이들의 지니계수는 0.5~0.6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상위 1% 가계의 자산점유율은 대략 20% 정도이다. 그 다음으로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은 상위 1%가 자산의 약 26% 정도를 가지고 있다. 한편 미국의 지니계수는 0.8수준으로 자산불평등이 가장 높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1%의 자산점유율은 3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avies and Shorrocks(1999)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얻어진 '자산분포의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 of wealth distribution)'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소비지출, 총소득, 근로소득 분포와 비교해 볼 때 자산분포는 이들보다 더욱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선진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0.3~0.4이지만, 자산 지니계수는 0.5~0.9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위 1%의 가계 또는 개인의 소득 점유율은 10%를 넘지 않지만 상위 1%의 자산 점유율은 15~35%에 이르고 있다. 둘째, 금융자산은 비금융자산보다 더욱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셋째,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다른 자산보다 더욱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넷째,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나 개인이 존재한다. 다섯째, 20세기에 있어서 자산분포의 불평등은 대체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정형화된 사실을 모두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모형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자산의 변화가 총소득, 자산수익률, 소비, 자본이전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관계식(accounting identity)은 자산분포의 불평등의 결정요인이나 불평등 추이 분석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분석도구가 된다.

Caner and Wolff(2004)는 1984~1999년 기간 동안 미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용가능한 저축이 부족한 가구의 구성비와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은 Wolff(2001)의 자산빈곤 개념¹⁾을 사용하여 저소득층의 자산빈곤의 결정요인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공식적인 소득개념에 기초한 빈곤율의 급격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산빈곤율은 1984~1999년 기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둘째, 이 기간 동안 경제성장이 지속되었고 또 주식시장이 활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빈곤의 심도(severity)는 오히려 증가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자산분포 연구로는 Leipziger, et al.(1992)을 들 수 있다. 이들은 198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4,291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을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1988년 총자산 Gini 계수가 0.58임을 밝히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자산상위 1%, 5%, 10%의 점유율은 각각 19%, 37%, 그리고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집중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토지보유인데, 1988년의 경우 상위 25%의 토지보유자들이 총 토지자산 가액의 90%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Leipziger, et al, 1992, p.46).

이정우·이성립(2001, 2001a, 2001b)은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자산의 분배를 추계하였는데, 외환위기 이전부터 순자산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서는 최하위층의 부채가 급증함을 발견하였다. 그 반면 최상위층에서는 순자산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부동산자산이었음을 발견하였다.

김진영(2002)에서는 1993~1998년간 대우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구성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 자산구성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본 결과 자산구성이 가계의 위험기피적인 성향을 크게 반영하고 있는 점 외에도 부동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보유 불평등 정도는 부동산자산만을 고려하였을 경우와 금융자산만을 고려하였을 경우 모두 소득불평등보다 더 높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남상호(2007)는 1999~2004년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資産 보유현황과 分配구조를 분석하였다. 자산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비중이 대단히 높고, 순자산 분포는 소득에 비하여 집중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자산보유 불평등이 심화되는 외에도 자산보유 양극화도 꾸준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빈곤계층 귀속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구의 소득과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주택을 보유한 가구일수록 빈곤계층에 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상호(2008)에서는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KLIPS) 2~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순자산과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0.731과 0.438로 나타났으며, 총소득과 순자산간의 상관계수는 미국(0.49)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

1) Wolff(2001)는 자산빈곤가구란 '일정기간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산유형(wealth-type)을 가지지 못한 가구'로 정의하였다.

인 0.313 이었다. 또한 2006년을 기준으로 상위 1%계층이 순자산의 16.7%를 가지고 있으며, 상위 5%는 39.8%, 그리고 상위 10%는 절반을 넘는 54.3%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자산이 소득보다 집중경향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최근 7년 동안 자산의 부유층 집중현상이 상당히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의 가구 순자산 불평등도를 구성요소별로 분해해 본 결과 부동산자산의 불평등기여도가 가장 높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가.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자료 개관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이하 KReIS)조사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가구내에 50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표본집단 5,11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는 50세 이상의 가구원 8,644명이다.²⁾

설문조사에서 조사 시점과 조사대상 기간의 구분은 중요한데, 국민노후보장패널 설문조사상의 '현재'는 2005년 8월 31일, 그리고 작년 한 해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이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가구용 설문과 개인용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가가구의 자산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자료를 가구 단위로 조정하여 이용하였다. 조사 대상가구는 50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이지만 부모가 모두 고령인 경우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가구주는 자녀가 되고, 고령인 부모는 기타 가구원이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실제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는 50세 이상인 사람이 기타 가구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약 16%에 해당하는 868가구($868/5,110 = 0.167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자산항목은 개인조사 대상자인 50세 이상의 개인 조사자와 그의 배우자를 대상(부부)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이 되는 가구원과 가구주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KReIS 조사대상이면서 동시에 가구주인 경우(4,252가구)에 대해서만 분석하기로 한다.³⁾ 그리고 분석에 이용한 자산 및 부채 자료는 부부단위로 조사된 것임을 감안하여 이를 가구단위로 변경하여 분석하였다.⁴⁾

자산관련 자료 중 우리나라의 특수한 형태인 전·월세 관련 보증금은 연구기관·연구자에 따라 부동산자산이나 금융자산⁵⁾으로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월세 관련 보증금은 부동산자산에 포함시켰다.⁶⁾ KReIS 가구소득은 부부단위의 소득과 기타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

2) 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는 50세 이상의 조사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법적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은 50세 미만이라도 개인조사의 대상이 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포함된 40대 가구주는 배우자가 50세 이상인 가구이다.

3) 50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가 50세 이상인 경우의 비율은 $83.2\%(4,252/5,110 = 0.8321)$ 이다.

4) 중·고령자 가구 표본 4,252가구에서 순자산의 결측치는 155가구인데, 자산 구성항목 중 일부 금액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영(0)으로 간주하였고, 모든 구성항목이 missing인 경우에는 순자산을 missing으로 처리하였다.

5) KReIS 원자료에서는 전·월세 관련 보증금을 분리할 수 있다.

6)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따라 자산원천별 불평등 요인분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여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 소득은 세전소득을 의미한다.

나. 불평등지수

가구자산 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 척도는 매우 다양한데, 여기서는 주로 지니계수와 엔트로피 지수를 이용하였다. 그 외에도 histogram, Lorenz 곡선, Pen's diagram 등을 부가적으로 사용하였다.

不平等을 측정하는 지수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Gini지수이지만 그 외에도 Atkinson지수, 대수 편차 평균(mean log deviation: MLD) 등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⁷⁾

실증분석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지니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Gini = \frac{1}{\mu n^2} \sum_{i=1}^N \sum_{j=1}^N w_i |y_i - y_j| \quad (1)$$

여기서 μ 는 y 의 산술평균($\mu = \frac{1}{n} \sum y_i$), y_i 및 y_j 는 i 번째 및 j 번째 가구의 순자산, w_i 는 가구 가중치, 그리고 N 은 표본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가구가중치의 합은 1이다($\sum w_i = 1$).

불평등 요인별 분해에 많이 쓰이는 일반화된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GE) 지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E(\alpha) = \frac{1}{\alpha(\alpha-1)} \left[\frac{1}{n} \sum_{i=1}^N w_i \left(\frac{y_i}{\mu} \right)^\alpha - 1 \right] \quad (2)$$

GE 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인데, 모든 자산이 동일하여 분배상태가 완전히 균등한 경우에 최소치 0을 가지며, 분배상태가 불평등할수록 그 값은 커진다. 또 α 의 값이 작을수록 하위자산계층의 자산변화에 민감하며, α 값이 클수록 상위자산계층의 자산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 자산불평등의 요인 분해

불평등도의 요인별 분해는 자산원천별 및 구성그룹별로 분해하였다. 자산원천별로는 순자산을 구성하는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 등의 순자산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것이고, 구성그룹별 요인분해는 다양한 가구주 특성에 따라 순자산의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것이다.⁸⁾

7) Cowell(2000)에서는 다양한 소득불평등 척도를 소개하고 있다.

8) 여기서 가구주 특성이란 연령, 교육수준, 직업관련(종사산업, 직업형태, 종사상 지위 등), 건강상태 등을 의미한다.

1) 자산원천별 불평등 요인 분해⁹⁾

여기서는 자산원천별 불평등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Gini 지수를 이용하는 Lerman and Yitzhaki(1985)의 원천별 분해 방법을 살펴본다. Gini 지수의 원천별 분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Lerman and Yitzhaki, 1985).

$$G = \sum_{k=1}^K \left[\frac{\text{cov}(y_k, F)}{\text{cov}(y_k, F_k)} \right] \cdot 2 \text{cov} \left[\frac{2 \text{cov}(y_k, F_k)}{m_k} \right] \cdot \frac{m_k}{m} \quad (3)$$

$$= \sum_{k=1}^K R_k \cdot G_k \cdot S_k$$

여기서 F (또는 F_k)는 자산전체(또는 k 번째 자산구성 요인)의 누적분포함수, R_k 는 k 번째 자산구성 요인과 전체 자산간의 Gini 상관관계수이고, G_k 는 k 번째 구성요인의 상대 지니지수, 그리고 S_k 는 k 번째 자산구성 요인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지니지수를 구성요인별로 분해하는 가장 큰 이점은 특정요인의 변화가 전체 불평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구성그룹별 요인분해를 살펴본다.

2) 구성그룹별 불평등 요인 분해

모그룹(population group)에 대한 구성그룹별 요인분해는 모그룹을 인구학적 속성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전체 불평등도를 그룹간(between-group) 불평등도와 그룹내(within-group) 불평등도로 분해할 수 있다.

$$GE(\alpha) = \sum_{k=1}^K v_k \lambda_k GE_k(\alpha) + \overline{GE}(\alpha) \quad (4)$$

여기서 $GE_k(\alpha)$ 는 그룹 k 의 자산불평등 척도, v_k 는 그룹 k 가 모그룹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 ($\equiv n_k/n$), λ_k 는 k 번째 그룹 평균값의 모그룹 평균값에 대한 비율($\equiv \mu_k/\mu$), $\overline{GE}(\alpha)$ 는 각 개별 그룹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 그룹별 평균값을 배정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모집단 불평등 척도이다. 위 식에서 좌변은 모그룹 전체 불평등도, 우변의 첫째 항은 개별 그룹내 불평등도의 가중평균, 그리고 우변의 둘째 항은 그룹간 불평등도를 각각 나타낸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50세 이상의 중·고령자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9) 남상섭 외(2005), 여유진 외(2005) 및 정진호 외(2001) 등에서도 본 절의 논의와 유사한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자산분포 현황을 살펴보고 불평등지수를 요인별로 분해해 본다. 제3절에서는 자산빈곤을 살펴보고, 자산빈곤의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국민연금연구원 노후보장패널 자료를 다른 기관의 자료와의 비교·분석해 본다. 끝으로 제 5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 및 자산불평등의 요인 분해

1.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순자산을 중심으로 불평등도를 측정하였으며, 비교를 위하여 총소득에 대한 불평등지수도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림 1은 순자산과 총소득의 histogram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Histogram: 순자산과 총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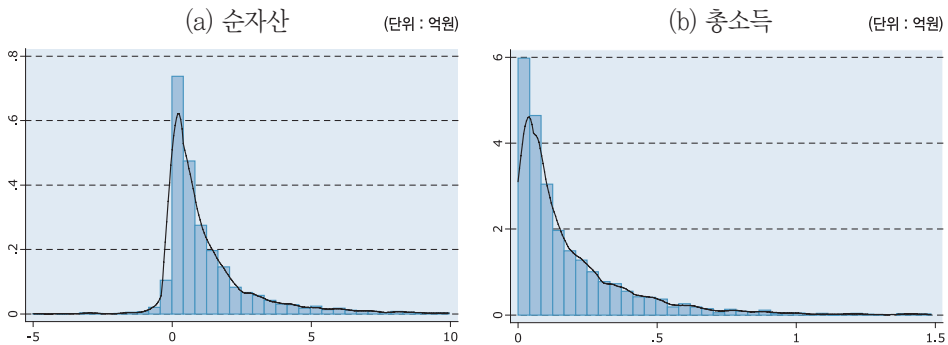


그림 2. 순자산에 대한 Pen's Pa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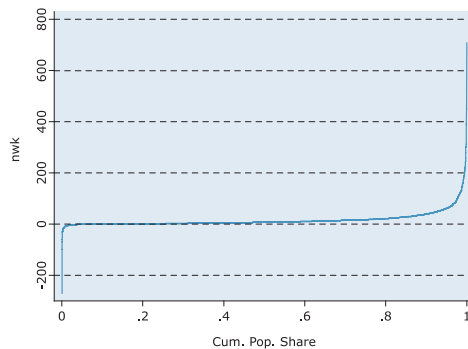


그림 2는 순자산에 대한 Pen's Parade를 나타낸 것이다. Pen's Parade은 순자산이 가장 작은 사람에서 부터 자산규모가 가장 큰 사람까지 순서대로 줄을 세운 것인데, 맨 오른쪽에서 급격하게 곡선이 올라가는 것은 자산의 부유층 집중현상이 심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고령자가구의 순자산점유율을 살펴보면 상위 1%가 순자산의 12.0%, 상위 5%는 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49.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점유율은 상위 1%가 총소득의 8.2%, 상위 5%가 총소득의 23.4%, 그리고 상위 10%가 총소득의 36.1%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자산분포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중의 하나인 '소득보다 자산의 집중도가 높다'는 사실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산 계층을 각각 1/3씩 구분하여 상·중·하위 계층의 점유율을 살펴보았다. 상위계층의 자산점유율은 82.2%로 이들이 순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위계층은 순자산의 17.8%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계층의 총소득 점유율(72.5%)에 비해 자산의 상위계층 집중도는 더욱 심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하위계층의 순자산점유율은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총자산과 총부채가 거의 동일함을 의미한다.

표 1. 순자산과 총소득의 자산계층별 점유율 (단위: %)

	순자산	총소득	총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총부채
상위 1%	12.0	8.2	12.0	12.2	18.4	27.6	24.0
상위 5%	34.0	23.4	32.4	33.7	47.7	56.7	50.6
상위 10%	49.3	36.1	46.9	49.0	63.2	64.8	69.5
하위(1/3)계층	0.0	4.9	3.4	3.2	0.0	0.0	0.0
중위(1/3)계층	17.8	22.5	17.8	17.6	5.5	3.3	3.5
상위(1/3)계층	82.2	72.5	78.8	79.2	94.5	96.7	96.5

주: 1)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이므로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전체 순자산의 합으로 계층별 순자산 합계를 나누어 순자산 점유율을 구하면 점유율이 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
 2) 기타자산은 사업용 이외의 승용차, 농기계, 회원권 등의 자산을 의미하며, 자산평가액은 지금 당장 팔려고 내놓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가격에 기타자산의 소유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함.

중·고령자 가구의 순자산 Gini 지수¹⁰⁾는 0.7102로 나타났는데, 총소득의 지니지수 값인 0.5869과 비교해 볼 때 순자산의 불평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순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자산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타자산의 지니지수가 0.8669로 가장 높았으며, 총부채는 0.8412, 금융자산이 0.8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자산은 0.6644로 나타나 순자산 구성항목 중 지니계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Gini 지수는 Gini 계수에 100을 곱한 값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양자를 구분 없이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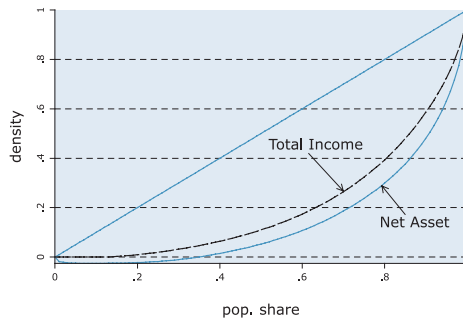
표 2.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지수

	순자산	총소득	총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총부채
Gini	0,7102	0,5869	0,6510	0,6644	0,8192	0,8669	0,8412
Gini_W	0,7880	0,5532	0,6847	0,6998	0,8426	0,8969	0,8943
MLD	0,7392	0,3855	0,8734	0,7058	0,4608	0,3107	0,0539
GE(2)	2,0693	1,1421	1,7858	2,0300	3,7273	9,3613	6,9218

주: MLD는 Mean Log Deviation, Gini_W는 OECD균등화 지수(가구원수의 square root)를 적용하여 구한 Gini계수, 기타자산의 정의는 앞의 표에 있는 각주를 참조.

그림 3은 순자산과 총소득의 Lorenz 곡선을 나타낸 것인데, 완전평등선에서 순자산이 총소득보다 더 멀리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구한 순자산불평등도가 총소득불평등도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그림 3. 순자산과 총소득의 Lorenz Curve



2. 자산원천별 불평등 요인 분해

중·고령자가구에서 순자산의 구성비율은 부동산자산이 1.024로 순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부동산자산이 차지하고 있으며,¹¹⁾ 금융자산은 0.1022, 기타자산은 0.0212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의 구성요소와 순자산간의 Gini 상관계수는 부동산 자산이 0.9655로 가장 높고, 금융자산이 0.7097, 기타자산이 0.6090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자산의 Gini지수는 0.6602이며 부동산의 순자산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0.9238로서 순자산 불평등도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자산(0.0844), 기타자산(0.0160)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인데 총부채가 양수(+)이므로 총자산의 순자산에 대한 비율은 1보다 큰 값으로 나타나며, 총부채는 차감항목이므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을 사용한다.

표 3. 순자산원천별 요인분해

순자산 구성요소	순자산 구성비율	구성요소 Gini	Rk	요소별 기여도	% Change
부동산자산	1,0244	0,6602	0,9655	0,9238	-0,1006
금융자산	0,1022	0,8223	0,7097	0,0844	-0,0178
기타자산	0,0212	0,8740	0,6090	0,0160	-0,0052
(-)총부채	-0,1478	-0,8489	-0,1360	-0,0241	0,1236
순자산		0,7068			

주: Rk는 순자산과 각 구성요소간의 Gini 상관계수, % Change는 각 구성요소가 1% 변화할 때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임.

표 4는 순자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에 대해 다시 세부 요인별로 불평등 요인분해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거주주택이 0,5787로 가장 높은 불평등 기여도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자산의 기여도는 0,2497로 그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거주주택과 사업체관련 부동산은 불평등기여도가 0,08~0,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거주용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6.7%, 사업체부동산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이 7.1% 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자산원천별 불평등도 요인분해 : 부동산자산

구성요소	구성비	구성요소 Gini	Rk	요소별 기여도	% Change
거주주택	0,6393	0,6578	0,9085	0,5787	-0,0606
비거주주택	0,0673	0,9705	0,8261	0,0818	0,0144
사업체	0,0714	0,9708	0,8553	0,0898	0,0184
기타	0,2219	0,9095	0,8166	0,2497	0,0277
부동산자산		0,6602			

3. 구성그룹별 불평등도 요인 분해

여기서는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를 이용하여 자산불평등도를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를 소개한다.

가. 가구주 연령대별 요인분해

가구주 연령대에 따라 순자산의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50대(0,5486), 60대(0,3121), 70대(0,0841)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50대 이상의 가구주가 존재하는 중·고령자 가구이므로 위와 같은 연령대에서 상대적 기여도가 크게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표 5. 가구주 연령대별 불평등도 요인 분해

연 령	entropy	그룹 구성비	$\alpha = 2$	절대기여도	상대기여도
40대	1,1908	0,0087	0,5395	0,0056	0,0027
50대	1,9762	0,3325	1,7275	1,1353	0,5486
60대	1,7430	0,3852	0,9617	0,6458	0,3121
70대	1,7697	0,2260	0,4352	0,1741	0,0841
80대	4,1759	0,0454	0,3874	0,0734	0,0355
90대	2,0839	0,0021	0,4291	0,0019	0,0009
그룹내	-	-	-	2,0360	0,9839
그룹간	-	-	-	0,0333	0,0161
전 체	2,0693	1,0000	-	2,0693	1,0000

주: 가구주가 40대 그룹은 가구주의 배우자가 50세 이상인 경우임(표본의 0.09%). α 는 각 자산계층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임. 절대기여도는 전체(순자산) 불평등도에서 각 그룹이 기여하는 불평등도를 의미하며, 상대기여도는 절대기여도를 구성비율로 표준화 한 것임.

나. 가구주 교육수준별 요인분해

가구주 교육수준별 순자산의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대학교 이하(0.3317), 고등학교 이하(0.1720), 중학교 이하(0.094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 가구주 교육수준별 불평등도 요인 분해

교육수준	entropy	그룹 구성비	$\alpha = 2$	절대기여도	상대기여도
무학	4,7992	0,1832	0,1076	0,0946	0,0457
초등학교 이하	1,4658	0,3095	0,3756	0,1704	0,0823
중학교 이하	1,3635	0,1637	0,8753	0,1954	0,0944
고등학교 이하	1,1091	0,2260	1,4203	0,3560	0,1720
대학교(2/4년제) 이하	1,0367	0,1004	6,5925	0,6863	0,3317
대학원 석사 이하	1,0166	0,0129	11,7978	0,1551	0,0750
대학원 박사 이하	0,6281	0,0035	51,2337	0,1135	0,0549
무응답	0,1613	0,0007	0,0782	0,0000	0,0000
그룹내	-	-	-	1,7714	0,8561
그룹간	-	-	-	0,2978	0,1439
전 체	2,0693	1,0000	-	2,0693	1,0000

다. 가구주 종사산업 형태별 요인분해

가구주 종사산업에 따라 순자산의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

업(0.1811),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0.1138),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0.079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 가구주 종사산업별 불평등도 요인 분해

교육수준	entropy	그룹 구성비	$\alpha = 2$	절대기여도	상대기여도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1,4152	0,1872	0,8891	0,2355	0,1138
광업	0,4793	0,0031	0,2238	0,0003	0,0002
제조업	1,2372	0,0604	1,1766	0,0880	0,042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6433	0,0038	3,0423	0,0074	0,0036
건설업	1,6483	0,0619	0,8556	0,0872	0,0422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2,7099	0,0595	2,3243	0,3748	0,1811
숙박 및 음식점업	1,6364	0,0285	0,4799	0,0223	0,0108
운수업	1,0678	0,0386	1,3985	0,0576	0,0278
통신업	0,3039	0,0028	2,1779	0,0019	0,0009
금융 및 보험업	1,0717	0,0066	2,4228	0,0171	0,0083
부동산, 임대업	1,9437	0,0339	2,0246	0,1333	0,0644
사업서비스업	0,9476	0,0103	5,8024	0,0569	0,02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1,0566	0,0158	6,8394	0,1139	0,0550
교육서비스업	1,0704	0,0174	3,2540	0,0606	0,0293
보건 및 사회복지업	1,7709	0,0056	12,0412	0,1204	0,0582
오락, 방송 및 공연사업	0,6193	0,0038	2,5682	0,0060	0,0029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3,3451	0,0654	0,7480	0,1636	0,0791
기타	0,1268	0,0007	0,1095	0,0000	0,0000
무응답	1,9986	0,3949	0,5548	0,4379	0,2116
그룹내	-	-	-	1,9846	0,9591
그룹간	-	-	-	0,0847	0,0409
전 체	2,0693	1,0000	-	2,0693	1,0000

종사산업 조사 대상이 아닌 그룹의 상대적 기여도(0.2116)으로 표 14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비취업자 그룹의 순자산에 대한 불평등도의 상대적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 가구주 직업형태별 요인분해

가구주 직업형태별 자산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입법 공무원, 고위 임원 및 관리자(0.1937), 판매 종사자(0.1563), 농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0.1082)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 가구주 직업형태별 불평등도 요인 분해

직업	entropy	그룹 구성비	$\alpha = 2$	절대기여도	상대기여도
입법 공무원·고위 임원 및 관리자	1,0917	0,0390	9,4058	0,4009	0,1937
전문가	1,0325	0,0162	6,8360	0,1145	0,0553
기술공 및 준전문가	0,9254	0,0174	3,4425	0,0554	0,0268
사무 종사자	1,0298	0,0247	4,4919	0,1142	0,0552
서비스 종사자	1,3950	0,0294	1,1094	0,0455	0,0220
판매 종사자	3,4295	0,0520	1,8147	0,3235	0,1563
농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1,3021	0,1754	0,9804	0,2240	0,108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8465	0,0548	0,9405	0,0436	0,0211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0,7216	0,0393	1,1165	0,0316	0,0153
단순 노무 종사자	2,4237	0,1555	0,3206	0,1208	0,0584
군인	0,1102	0,0007	1,1756	0,0001	0,0000
기타	0,0000	0,0002	0,7692	0,0000	0,0000
무응답	1,9916	0,3953	0,5563	0,4380	0,2117
그룹내	-	-	-	1,9122	0,9241
그룹간	-	-	-	0,1570	0,0759
전체	2,0693	1,0000	-	2,0693	1,0000

마.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요인분해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자산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상용직(0,2359), 임시직(0,025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취업자 그룹이 0,72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9.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불평등도 요인 분해

종사자 지위	entropy	그룹 구성비	$\alpha = 2$	절대기여도	상대기여도
상용직	1,6469	0,1731	1,7125	0,4882	0,2359
임시직	2,5411	0,0386	0,5313	0,0521	0,0252
일용직	1,1348	0,0621	0,1527	0,0108	0,0052
비취업자	2,0908	0,7262	0,9859	1,4970	0,7235
그룹내	-	-	-	2,0481	0,9898
그룹간	-	-	-	0,0212	0,0102
전체	2,0693	1,0000	-	2,0693	1,0000

바. 가구주 육체적 건강상태별 요인분해

가구주의 육체적 건강상태에 따른 순자산의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좋은 편이다”에서 0.4531, “보통이다”에서 0.1940, “좋지 않은 편이다”에서 0.1686으로 나타났다.

표 10. 가구주 육체적 건강상태별 불평등도 요인 분해

육체적 건강	entropy	그룹 구성비	$\alpha = 2$	절대기여도	상대기여도
매우 좋지 않다	2,3248	0,1268	0,1844	0,0544	0,0263
좋지 않은 편이다	2,3997	0,3234	0,4497	0,3490	0,1686
보통이다	1,6142	0,2265	1,0983	0,4015	0,1940
좋은 편이다	1,5715	0,2789	2,1387	0,9375	0,4531
매우 좋다	1,3382	0,0346	4,9261	0,2279	0,1101
무응답	1,0027	0,0099	0,4605	0,0046	0,0022
그룹내	-	-	-	1,9748	0,9543
그룹간	-	-	-	0,0945	0,0457
전 체	2,0693	1,0000	-	2,0693	1,0000

다음 절에서는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빈곤 현황 및 자산빈곤의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III.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빈곤 현황 및 자산빈곤의 결정요인

1.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빈곤 현황

가.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빈곤 현황

중·고령자 가구는 가구주 연령대별로 50, 60, 70대에서 4,060가구(95.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후보장패널(KReIS) 조사가 50세 이상 개인에 대해 이루어진 조사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의 가구주로 이루어진 가구에 대해서만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Caner and Wolff(2004), Wolff(1990)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중위자산의 50%를 자산빈곤선으로 보고 그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빈곤가구로 분류하기로 한다.¹²⁾

표 11의 중·고령자 가구의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면, 표본수가 작은 40·90대를 제외하고 연령대에 따른 빈곤층의 비율은 80대 57.7%, 70대 47.5%, 60대 28.6%, 50대 24.5% 순으로 가구주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12) 빈곤선의 정의를 다르게 적용하더라도 빈곤율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위자산 40%와 60%를 빈곤선으로 볼 때 빈곤가구 비율은 각각 27.8%와 34.9%이다.

13) 가구주가 40대(배우자가 50대)인 경우는 표본수가 많지 않아 빈곤층의 비율이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표 11.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빈곤 현황

연 령	전 체	빈 곤	
		빈 곤	일 반
40대	23 [0.5%]	14 (61.7%)	9 (38.3%)
50대	1,839 [43.3%]	451 (24.5%)	1,389 (75.5%)
60대	1,407 [33.1%]	402 (28.6%)	1,005 (71.4%)
70대	814 [19.1%]	386 (47.5%)	428 (52.6%)
80대	161 [3.8%]	93 (57.7%)	68 (42.3%)
90대	8 [0.2%]	6 (83.2%)	1 (16.8%)
합 계	4,252 [100.0%]	1,352 (31.8%)	2,900 (68.2%)

주: []내 수치는 열 구성비이고, ()내는 행 구성비를 나타냄.

나. 가구주 교육수준별 자산빈곤 현황

표 12에서 중·고령자 가구는 가구주의 교육수준별로 초등학교 이하에서 1,255가구(29.5%)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이하 1,040가구(24.5%), 중학교 이하 714가구(16.8%), 무학인 경우가 681가구(16.0%)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 별로 자산빈곤층의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무학 59.2%, 초등학교 이하 37.8%, 중학교 이하 26.8%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각 교육수준 그룹에서 자산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학인 경우는 59.2%로 일반 가구의 비율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학인 경우를 제외한 다른 그룹들은 일반가구의 비율이 자산빈곤층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가구주 교육수준별 자산빈곤 현황

교육수준	전 체	빈 곤	
		빈 곤	일 반
무학	681 [16.0%]	403 (59.2%)	278 (40.8%)
초등학교 이하	1,255 [29.5%]	475 (37.8%)	780 (62.2%)
중학교 이하	714 [16.8%]	191 (26.8%)	523 (73.2%)
고등학교 이하	1,040 [24.5%]	223 (21.4%)	817 (78.6%)
대학교(2/4년제) 이하	485 [11.4%]	53 (10.9%)	432 (89.1%)
대학원 석사 이하	57 [1.3%]	7 (12.5%)	50 (87.5%)
대학원 박사 이하	18 [0.4%]	0 (0.0%)	18 (100.0%)
합 계	4,249 [100.0%]	1,351 (31.8%)	2,898 (68.2%)

다. 가구주 종사산업별 자산빈곤 현황

가구주의 종사산업별로 중·고령자 가구는 농업·수렵업 및 임업에서 783가구(28.9%)로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287가구(11.0%), 건설업 296가구(10.9%),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85가구(10.5%)순으로 나타났다.

자산빈곤층의 비율은 숙박 및 음식점업 37.4%,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36.7%, 건설업 29.4%, 농업·수렵업 및 임업 27.2%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가구주 종사산업별 자산빈곤 현황

종사산업	전체		빈곤	
	가수	비율	가수	비율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783	[28.9%]	213	(27.2%)
광업	6	[0.2%]	2	(30.4%)
제조업	297	[11.0%]	71	(23.9%)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9	[0.7%]	3	(17.7%)
건설업	296	[10.9%]	87	(29.4%)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252	[9.3%]	57	(22.6%)
숙박 및 음식점업	122	[4.5%]	46	(37.4%)
운수업	191	[7.1%]	24	(12.3%)
통신업	15	[0.6%]	4	(24.3%)
금융 및 보험업	38	[1.4%]	8	(22.0%)
부동산, 임대업	150	[5.5%]	29	(19.5%)
사업서비스업	41	[1.5%]	5	(11.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88	[3.3%]	9	(9.8%)
교육서비스업	88	[3.2%]	8	(8.7%)
보건 및 사회복지업	27	[1.0%]	4	(15.4%)
오락, 방송 및 공연사업	11	[0.4%]	2	(18.2%)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85	[10.5%]	104	(36.7%)
기타	2	[0.1%]	1	(35.6%)
합계	2,711	[100.0%]	676	(24.9%)

라. 가구주 직업형태별 자산빈곤 현황

중·고령자가구를 가구주 직업형태별로 살펴보면, 농업 및 어업숙련에 종사하는 가구가 739가구(27.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단순 노무 종사자 662가구(24.4%), 기능원 및 관련 기는 종사자가 268가구(9.9%)순으로 직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14. 가구주 직업형태별 자산빈곤 현황

종사직업	전체	빈곤	
		빈곤	일반
임법 공무원·고위 임원 및 관리자	200 [7.4%]	19 (9.4%)	181 (90.6%)
전문가	81 [3.0%]	9 (11.7%)	71 (88.3%)
기술공 및 준전문가	81 [3.0%]	14 (17.5%)	66 (82.5%)
사무 종사자	130 [4.8%]	9 (6.8%)	121 (93.2%)
서비스 종사자	131 [4.8%]	39 (29.9%)	92 (70.1%)
판매 종사자	222 [8.2%]	58 (26.1%)	164 (73.9%)
농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739 [27.3%]	186 (25.2%)	553 (74.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68 [9.9%]	67 (24.8%)	202 (75.2%)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192 [7.1%]	28 (14.5%)	164 (85.5%)
단순 노무 종사자	662 [24.4%]	247 (37.3%)	415 (62.7%)
군인	3 [0.1%]	0 (0.0%)	3 (100.0%)
기타	1 [0.0%]	0 (0.0%)	1 (100.0%)
합계	2,711 [100.0%]	676 (24.9%)	2,035 (75.1%)

각 그룹 내 자산빈곤층에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37.3%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종사자가 29.9%, 판매종사자가 26.1%, 농업 및 어업숙련 25.2%순으로 높게 빈곤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자산빈곤 현황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임시직, 그리고 일용직으로 구분되는데, 상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하여 일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임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근로활동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중·고령자가구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면 상용직 836가구(66.0%), 일용직 280가구(22.2%), 임시직 149가구(11.8%)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빈곤층의 비율은 일용직에서 46.7%, 임시직 39.5%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상용직은 19.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종사상 지위별 자산빈곤 현황

종사상지위	전 체		빈 곤		일 반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상용직	836	[66.0%]	160	(19.1%)	676	(80.9%)
임시직	149	[11.8%]	59	(39.5%)	90	(60.5%)
일용직	280	[22.2%]	131	(46.7%)	149	(53.3%)
합 계	1,266	[100.0%]	350	(27.7%)	916	(72.3%)

바. 가구주 육체적 건강상태별 자산빈곤 현황

가구주의 건강상태를 육체적 건강상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주의 육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이며 자산빈곤에 속하는 가구는 40.6%, 가구주 건강은 “좋은 편이다”인데 빈곤가구에 속하는 가구는 19.0%, “보통이다”이며 빈곤가구에 속하는 가구는 25.4%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의 육체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라고 대답한 가구는 자산빈곤층이 5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육체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가구주의 가구는 자산빈곤이 다른 그룹에 비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체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라고 대답한 가구는 자산빈곤에 속하는 계층이 9.4%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가구주의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빈곤가구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가구주 육체적 건강상태별 자산빈곤 현황

육체적 건강상태	전 체		빈 곤		일 반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매우 좋지 않다	479	[11.4%]	281	(58.7%)	198	(41.3%)
좋지 않은 편이다	1,335	[31.8%]	541	(40.6%)	793	(59.4%)
보통이다	967	[23.0%]	246	(25.4%)	721	(74.6%)
좋은 편이다	1,250	[29.8%]	238	(19.0%)	1,012	(81.0%)
매우 좋다	164	[3.9%]	16	(9.4%)	149	(90.6%)
합 계	4,195	[100.0%]	1,322	(31.5%)	2,873	(68.5%)

2. 자산빈곤의 결정요인

여기서는 자산빈곤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위 순자산액 50% 이하를 자산빈곤가구로 보았다. 자산빈곤선에 해당하는 순자산액은 2,400만원이고 자산빈곤 가구는 1,448가

구인데, 전체 중·고령자가구(4,252가구)의 34.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빈곤가구에 속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로짓(logit)모형을 추정하였다. 지산빈곤의 결정요인으로는 가구주 성별, 월세 가구 여부, 영아(0~4세)가 있는지 여부, 가구주 연령, 교육수준,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표 17. 로짓모형 기초통계량

변 수	관찰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빈곤여부 (빈곤=1)	3,683	0.3	0.5	0	1
성별 (여=1)	3,683	0.3	0.5	0	1
연령 (연속)	3,683	64.4	8.7	44	95
연령 ²	3,683	4,221.0	1,151.4	1,936	9,025
교육수준 (이산)	3,683	2.8	1.3	0	7
자가보유 (보유=1)	3,683	0.7	0.4	0	1
총소득 (log)	3,683	9.4	1.1	4.6	13.4
월세여부 (월세=1)	3,683	0.1	0.3	0	1
0~4세 아동 (이산)	3,683	0.0	0.2	0	3
육체적 건강상태 (이산)	3,683	2.7	1.1	0	5
경제활동 (활동중=1)	3,683	0.6	0.5	0	1
교육비지출 (연속)	3,683	1,387.3	3,975.0	0	48,000
의료지지출 (연속)	3,683	99.5	181.2	0	5,830

표 18. 로짓모형의 추정결과

변 수	추정치	표준오차	z-값	P > z	[90% 신뢰구간]	
성별	0.5682	0.1006	5.65	0.00	0.3711	0.7654
연령	-0.3564	0.0652	-5.46	0.00	-0.4842	-0.2286
연령 ²	0.0028	0.0005	5.66	0.00	0.0018	0.0037
교육수준 (이산)	-0.2531	0.0425	-5.96	0.00	-0.3363	-0.1699
자가보유 (보유=1)	-1.9438	0.1062	-18.31	0.00	-2.1518	-1.7357
총소득 (log)	-0.3469	0.0582	-5.96	0.00	-0.4610	-0.2327
월세여부 (월세=1)	1.3063	0.1916	6.82	0.00	0.9308	1.6817
0~4세 아동 (이산)	1.2791	0.2737	4.67	0.00	0.7428	1.8155
경제활동 (활동중=1)	0.4052	0.1112	3.64	0.00	0.1872	0.6233
육체적 건강상태 (이산)	-0.1801	0.0451	-4.00	0.00	-0.2685	-0.0918
교육비지출 (연속)	0.0000	0.0000	-0.77	0.44	0.0000	0.0000
의료지지출 (연속)	0.0002	0.0002	0.91	0.36	-0.0002	0.0006
상수항	15.7530	2.2951	6.86	0.00	11.2548	20.2513

주: 유효 관찰치수 = 3,683, Likelihood Ratio 통계량 $\chi^2(12)=1435.85$ (p값=0.00), Pseudo $R^2=0.3013$

표 17은 초정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정리한 것이다. 표 18은 자산빈곤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로짓(logit)모형의 추정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첫째, 가구주 성별이 여성인 경우,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인 경우, 가족 중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자산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구주 연령은 연속변수인 형태로 제공항도 포함시켰는데, 추정계수로부터 최저점을 구해 보면 가구주 연령이 약 63세가 될 때까지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지만 그 이후부터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구주의 육체적 건강상태가 좋거나 혹은 자기 집(거주용)을 보유한 가구는 자산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한 의료비 지출이나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자산빈곤 그룹에 속하게 된다는 가능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살펴보기 위하여 교육비지출액과 의료비지출액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켜 보았다. 그런데 추정결과에 의하면 교육비나 의료비 지출 모두 자산빈곤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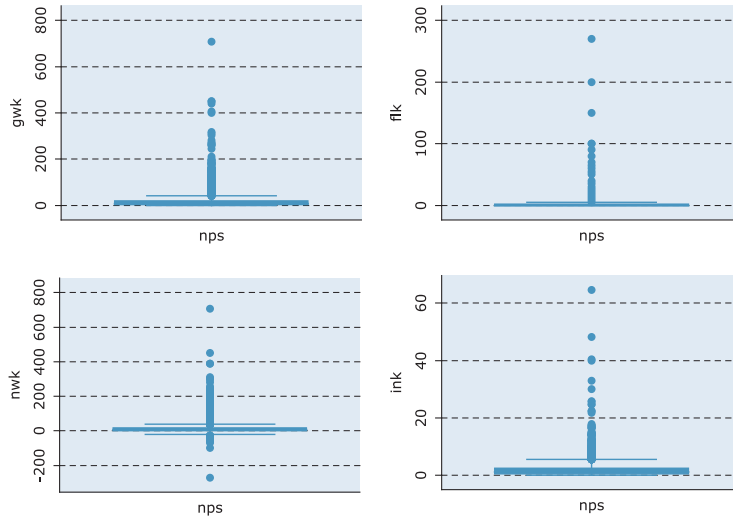
한편 가구주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자산빈곤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특이한데, 이 변수는 포함된 독립변수에 따라 부호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는 내생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즉 빈곤가구는 처분하여 소비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서 일을 해야만 하는)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usation)가 원인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IV. 몇 가지 논의

1. 특이항의 영향

그림 4는 총자산, 부채, 순자산의 분포를 개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사각형으로 표시된 상자의 위선과 아래 선은 각각 위쪽 사분위(25%, Q3) 및 아래쪽 사분위(25%, Q1)인 값을 나타내며, 상자의 가운데 있는 가로선은 중위수(Q2)를 나타낸다. 상자의 위·아래에 표시된 가로선('⊥' 및 '⊋')은 두 사분위 값의 차이(Q3-Q1)에 1.5를 곱한 값을 나타내며, 동그라미들은 그에 인접한 관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위쪽으로 극단치가 많이 나타나는 비대칭적 분포에서는 부유층 1%, 5% 점유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난다.

그림 4.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소득의 boxplot



주: 왼쪽 위는 총자산, 왼쪽 아래는 순자산, 오른쪽 위는 총부채, 오른쪽 아래는 총소득임.

표 19. 극단치의 영향

변 수	조사기관	관찰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원자료						
총자산	NPS	4,252	17,131	32,380	0	708,1
	NSO	3,617	35,961	73,453	0	1,726,1
총부채	NPS	4,252	2,206	8,208	0	270,0
	NSO	3,617	3,513	8,107	0	164,8
순자산	NPS	4,252	14,926	30,367	-270,0	708,1
	NSO	3,617	32,448	6,922	-34,9	1,596,1
총소득	NPS	4,252	1,896	2,865	0	64,6
	NSO	3,617	3,237	3,609	6,0	136,0
상하 1% 절단						
총자산	NPS	4,218	16,103	22,252	0	160,2
	NSO	3,554	30,534	42,794	0,015	303,1
총부채	NPS	4,218	1,825	4,013	0	30,0
	NSO	3,580	3,167	5,081	0	32,9
순자산	NPS	4,175	14,261	20,452	-7,5	156,0
	NSO	3,530	26,626	38,186	-1,3	274,7
총소득	NPS	4,223	1,947	2,207	0	14,0
	NSO	3,537	2,856	2,101	0,3	13,0

가구 자산 및 부채의 설문 자료는 자산분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데 자산조사의 경우 소득조사에 비하여 신뢰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산분포가 극단적으로 치우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표본의 크기가 상당히 큰 경우에도 표본오차(sampling error)가 분포의 추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표 19은 원자료와 상하 1%를 제외한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최대값이 크게 줄어들어 상위 표본의 포함여부에 따라 분포의 모습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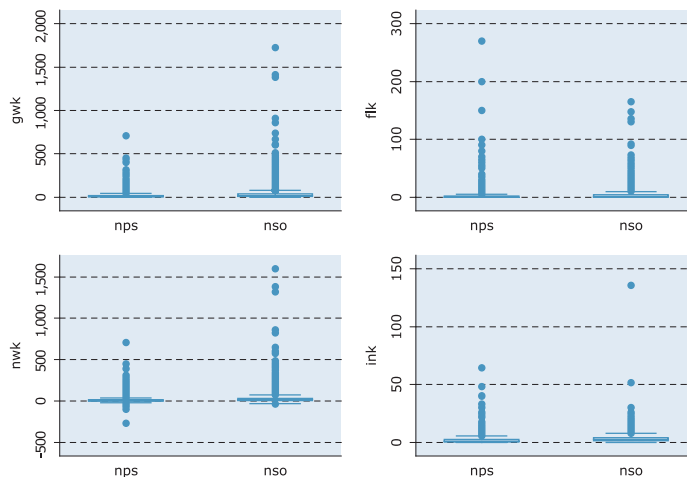
2. 다른 자료와의 비교

국민노후보장 패널자료와 비교 가능한 자료로는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 자료와 노동연구원의 고령자 패널자료가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노후보장 패널자료의 상대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중 가구주가 50세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면 유효관찰치수는 4,252개이고,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 자료에서 가구주가 50세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면 3,617개가 된다.

아울러 통계청 표본에 부자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의 총자산과 국민연금연구원의 부채 자료에서는 극단치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순자산에서도 위쪽과 아래쪽으로 극단치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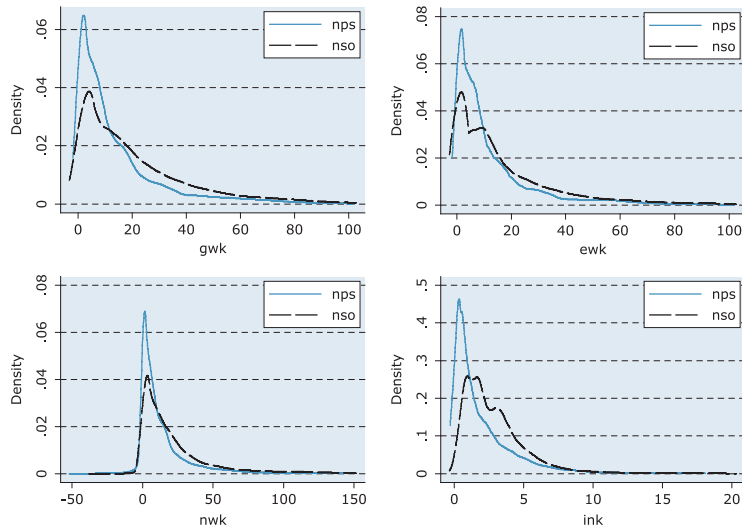
그림 5. 국민연금연구원(NPS)와 통계청(NSO) 자료의 비교



주: 왼쪽 위는 총자산, 왼쪽 아래는 순자산, 오른쪽 위는 총부채, 오른쪽 아래는 총소득임.

그림 6은 적응적 kernel을 이용하여 추정한 분포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두 자료의 차이를 구명하기 위하여 분포의 오른쪽 끝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0 부근에서의 밀도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6. 노후보장패널자료와 가계자산조사 자료의 비교: 적응적 kernel 밀도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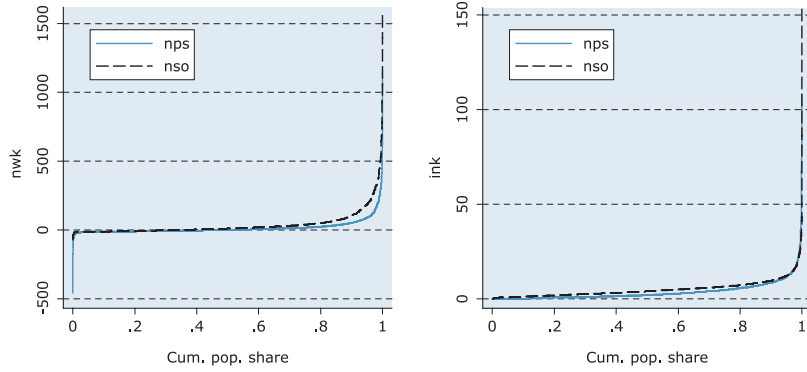
- 주: 1) adaptive kernel density estimates (Epanechnikov kernel)을 이용하였으며, sample size는 각각 4,252와 3,617임.
- 2) 왼쪽 위는 총자산, 오른쪽 위는 총부채, 왼쪽 아래는 순자산, 오른쪽 아래는 총소득임.
- 3) nps는 국민연금연구원의 노후보장패널 자료이고 nso는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 자료임.

그림 7은 순자산과 총소득의 Pen's Diagram을 나타내고 있는데,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통계청 자료의 자산 및 소득이 더 크기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순자산의 경우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음(-)의 순자산 보유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통계청 자료에서 자산 상위계층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총소득의 경우 두 기관 자료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상위소득 그룹에 가서는 통계청 자료에 고소득자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에서는 두 기관에서 조사된 순자산 자료를 비교하고 있다. 우선 통계청 자료의 불평등도가 더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서는 음(-)의 자산 보유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인구비중 40% 정도까지는 Lorenz곡선이 가로선의 0 이하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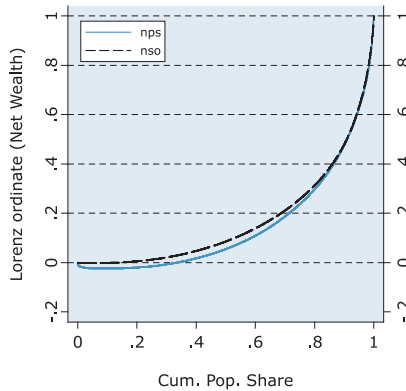
다음 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림 7. 노후보장패널자료와 가계자산조사 자료의 비교: 순자산과 총소득의 Pen's Diagram



주: 왼쪽 그림은 순자산, 오른쪽 그림은 총소득에 대한 그림임.

그림 8. 로렌츠 곡선의 비교 (순자산)



V.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고령자가구의 자산분포의 특징, 자산불평등, 그리고 자산빈곤 현황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중·고령자가구에서 순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부동산자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은 및 기타자산은 점유비중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구성요소와 순자산간의 Gini 상관계수는 부동산 자산이 0.9655로 가장 높고, 금융자산이 0.7097, 기타자산이 0.6090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자산의 지니지수는 0.6602이고 부동산의 순자산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0.9238로 순자산 불평등도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자산(0.0844), 기타자산(0.0160)의 순자산에 대한 불평등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에 대해 다시 세부 요인별로 살펴보면 거주주택이 0.5787로 가장 높은 불평등 기여도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자산의 기여도는 0.2497로 그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거주주택과 사업체관련 부동산은 불평등기여도가 0.08~0.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자가구의 순자산점유율을 살펴보면 상위 1%가 순자산의 12.0%, 상위 5%는 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49.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점유율은 상위 1%가 총소득의 8.2%, 상위 5%가 총소득의 23.4%, 그리고 상위 10%가 총소득의 36.1%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자산분포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중의 하나인 '소득보다 자산의 집중도가 높다'는 사실이 성립하고 있었다.

50세 이상의 가구주로 이루어진 가구에 대해서 중위자산의 50%를 자산빈곤선으로 보고, 이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한 다음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대에 따라 자산빈곤층의 비율은 80대에서 57.7%, 70대에서 47.5%, 60대에서 28.6%로 나타나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산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가 80대인 경우는 자산빈곤가구의 비중(57.7%)이 일반가구의 비중(42.3%)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빈곤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짓(logit)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가구주 성별이 여성인 경우,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인 경우, 가족 중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자산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주 연령이 약 63세가 될 때까지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지만 그 이후부터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육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 집(거주용)을 보유한 가구는 자산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한 의료비 지출이나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자산빈곤 그룹에 속하게 된다는 가능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살펴본 결과, 두 변수 모두 자산빈곤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로부터 얻어진 정책적 제안의 하나는 퇴직 시점이 가까운 장년층 근로자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개발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 등과 같은 자산형성제도는 궁극적으로 은퇴한 중·고령자가구의 자산빈곤을 완화시키고 역모기지

제도 등의 이용가능성을 높이는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도와서 '노후 소득의 보장'이라는 복지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제도상의 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하여 자산을 축소하는 경향이 만연함을 감안할 때 수급자격과 관련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낮게 유지토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자산분포와 관련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관련 원시자료를 다른 정부기관이나 학계에 공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남상호는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경기변동과 재정지출의 거시적 분석이며, 현재 소득분배, 자산분포 등을 연구하고 있다(E-mail: johnnam@chol.com).

권순현은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재정·금융 등이다(E-mail: cami@chol.com).

참고문헌

- 김진영(2002). 대우패널 자료를 통해 본 1990년대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 *재정논집*, 17(1), pp.47-74.
- 남상섭, 신범철, 안병룡(2005).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와 불평등의 요인분해. *한국창업정보학회 창업정보학회지*, 8(2), pp.159-183.
- 남상호(2008). 家計資産 分布와 不平等度의 要因別 分解: 勞動패널 資料를 中心으로. 제9차 노동패널학술대회 발표논문. <http://user.chol.com/~johnnam/pubfin/distribution.htm>
- _____(2007).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시사점.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재정학회 발표 논문*. <http://user.chol.com/~johnnam/pubfin/distribution.htm>
- _____, 권순현(2007). 우리나라의 자산분포: 한국 가계자산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신현구, 부가청, 반정호(2007). 고령자패널조사 소개.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11.
- 이정우, 이성립(2001). 한국 가계자산 불평등의 최근 추이.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 _____, _____(2001a). 한국의 부의 불평등 추계. *경제발전연구*, 7(1), 한국경제발전학회, pp.1-28.
- _____, _____(2001b). 한국 가계자산 불평등의 최근 추이. *노동정책연구*, 1(1), 한국노동연구원, pp.39-51.
- 정진호, 최강식(2001). 근로자 가구소득 불평등의 요인별 분해. *경제학연구*, 49(3), pp.39-64.
- 통계청(2007). 2006 가계자산조사 보고서. 통계청.
- Barro, Robert, J.(1974). Are Government Bonds Net Weal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2, no. 6, pp.1095-1117.
- Caner, Asena, & Edward N. Wolff. (2004). Asset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1984-99: Evidence from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50, Issue 4, pp.493-518.
- Cowell, Frank A. (2000). *Measuring Inequality*. Third edition. Prentice-Hall/Harvester-Wheat sheaf, Hemel Hempstead.
- Davies, J. B. (1979). On the Size Distribution of Wealth in Canad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25, Issue 3, pp.237-259.
- _____, & Anthony B. Shorrocks. (1999). The Distribution of Wealth.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1, pp.605-675.

- Greenwood, Daphne. (1983). An Estimation of U.S. Family Wealth and Its Distribution from Microdata, 1973.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29, Issue 1, pp.23-44.
- Juster, F. Thomas, & Kathleen A. Kuester. (1991). Differences in the Measurement of Wealth, Wealth Inequality and Wealth Composition Obtained from Alternative U.S. Wealth Survey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37, Issue 1, pp.33-62.
- Leipziger, D. M., D. Dollar, A. F. Shorrocks, & S. Y. Song. (1992).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in Korea*,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 Lerman, Robert I., & Shlomo Yitzhaki. (1985). Income Inequality Effects by Income Source: A New Approach and Appl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7, no. 1, pp.151-156.
- Oja, Gail. (1983). The Distribution of Wealth in Canad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29, Issue 2, pp.161-173.
- Podoluk, J. R. (1974). Measurement of the Distribution of Wealth in Canad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20, Issue 2, pp.203-216.
- Shorrocks, Anthony F. (1982).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Econometrica*, vol. 50, no. 1, pp.193-212.
- Wolff, Edward N. (1990). Wealth Holdings and Poverty Status in the U.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36, Issue 2, pp.143-165.
- Wolfson, Michael C. (1979). Wealth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Canada 1969-70.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25, Issue 2, pp.129-140.

Asset Distribution, Inequality, and Poverty among Elderly Households in Korea

Sang-Ho Na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oonhyun Kwo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net-asset distribution, inequality, and poverty among elderly households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recently released Korea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data were analyzed.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op one percentile of the elderly households owned 12% of total net-assets, top 5 percentile 34%, and top decile 49.3%. When it comes to total income, however, top one percentile earned 8.2%, top 5 percentile 23.4%, and top decile 36.1%. This confirmed one of the stylized facts on asset distribution that the concentration ratio of asset is higher than that of income.

Next, the net-asset poverty line was defined as the households with net-assets less than half (50%) of the median.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household heads by age, the poverty rate was 57.7% for those in their 80s, 47.5% for those in their 70s, and 28.6% for those in their 60s. The poverty rate increased with the age of the household heads, and the share of the asset-poor households was higher than the non asset-poor ones among the households with heads in their eighties.

According to the regression results of the logit analysis, there is high probability of being asset-poor if the household heads is female, if households living with monthly payments (Wolse), i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0-4 of age). With regard to the age of household head, the probability of being asset poor decreased until the age of around 63, and then increased thereafter. The probability of being asset-poor becomes lower if the level of education is higher, if the level of income is higher, if the physical health condition is better than average.

The government needs to initiate policy that supports asset-building program for people nearing retirement. This will eventually alleviate the asset-poverty of aged groups, and bring out maximum policy effects by helping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KEY WORDS Net-asset Distribution, Inequality, Poverty, Generalized Entropy